

사시사철 관광객 끌어들이며 활력 되찾고 소득 쑈~욱



전남 혁신 어촌의 '바다 이야기'

<11> 함평 석두어촌계



지난 5월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함평 석두마을을 찾아 '바다가꿈' 행사를 진행한 뒤 주민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만에 자리한 '석두마을'. 함평 유일의 해상교통로가 있는 석두에는 돌머리 해수욕장이 있다. 석두마을은 해수욕과 인공해수 풀장으로 유명하며, 바지락 캐기 등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다. 갯벌에는 조개, 해초류가 많아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된다.

“쌓여가는 마을공동자산 보면 뿌듯 도시민 즐겨찾는 어촌 만들기 최선”

손흥주 함평 석두어촌계장

“몇몇 주민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부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촌계를 이끌고 있습니다. 쌓여가는 마을공동자산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입니다.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을 하면서 소득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부담 6억 원도 큰 어려움 없이 낼 수 있었어요.”

손흥주(68) 함평 석두어촌계장은 최근 마을기업을 만들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출자금을 모집했다. 일주일만에 주민 67명이 1억5000만 원을 전해왔다. 그만큼 손어촌계장과 어촌계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의미다. 어촌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입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일부는 주민 모두에게 배당했다. 리더가 어촌계를 잘 이끌고, 그에 따른 이익은 모두가 공유하면서 마을 분위기도 좋아졌다. 공동체 행사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일을 위해 귀어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최근 5년간(2018~2023년) 석두마을에 귀어한 도시민은 모두 7명입니다. 이 가운데 남편의 고향 유턴을 따라 이곳을 찾은 김진숙(54) 사무장도 있죠. 서울 토박이였던 김 사무장이 2015년 마을에 들어오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공모사업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매점 운영, 체험 프로그램 가동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는 연말까지 방앗간과 귀어빌리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어인이 어촌에서 할 일을 만들고, 그들이 중단기적으로 머물면서 귀어를 준비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다. 또 앞으로 함평 석두 앞바다와 갯벌에서 나는 석화, 낙지, 꼬막, 바지락 등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을 유치할 계획이다.

“마을 주민들의 평균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정도 될 겁니다. 농업, 어업, 관광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돼 있기 때문이죠. 어촌이



도시민들이 찾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돼야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하죠.”

손어촌계장은 우수어촌체험휴양마을 최우수상, 어촌체험마을 전진대회 최우수상, 어울림마을 콘테스트 최우수상 등 다양한 상을 휩쓸었다. 최근 소득이 증가하고 마을이 살기 좋아졌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의 자녀가 귀어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마을이 계속해서 성장·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은 물론 외지인들까지 느낄 정도다.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 어촌이 되어야죠. 어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관광업, 유통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어촌에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각 어촌별로 위치나 조건, 역량 등에 따라서 어떤 업종이, 분야가 자신의 어촌에 어울릴 것인지를 주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올바른 리더십입니다.”

함평 석두마을에는 151가구 391명이 살고 있다. 석두(돌머리)는 서해안에 맞닿은 육지의 끝이 바위로 돼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대도시 광장에서 30~40분이면 닿을 수 있는 돌머리 해수욕장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빈다. 여름에는 해수욕, 겨울에는 바닷바람, 봄·가을에는 맨손 고기잡기, 캠핑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해 남녀노소가 찾고 있다.

해안 곳곳에는 기묘한 갯바위들이 울퉁불퉁 솟아 있고 아름드리 소나무들을 볼 수 있는데, 폭 70m 길이 1km의 백사장이 있어 일광욕도 좋다. 해변 위쪽으로는 국도교통부 해안 누리길 중 하나인 7.6km 구간의 돌머리 해안길이 펼쳐진다. 특산물로는 갯바위 곳곳에 서식하는 자연산 굴, 석화와 낙지, 새꼬막, 보리새우 등이 있다. 석화는 캐는 즉시 팔려나갈 만큼 인기가 높다. 다만 주민들의 고령화, 주거 인구 감소 등으로 수산물 생산량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어업 외 소득을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돌머리 해수욕장이라는 자원을 이용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돌머리 해수욕장 인근에는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의대전, 함평자연생태공원, 꽃무릇공원, 함평만 낙조, 황금박쥐전시관, 고막천석교, 함평양사·파종류 전시관 등 함평 8경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어필했다. 함평군이 움직여 지난 2013년부터 85억 원을 투입해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유희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찾지 않은 갯벌에 탐방로를 만들었고, 썰물 일 때 해수욕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해수욕장을 만들어 무료로 운영했다. 그늘이 없는 해수욕장의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자 26개를 세우는 등 마을의 세심한 배려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기에 카리반, 글램핑장 등이 들어서면서 즐기며 머물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게 됐다. 매년 9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카리반과 글램핑장은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바닷가를 거닐거나 해수욕을 하며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기 위해 광주, 서울 등에서 찾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잡아 소비하게 하느냐를 손흥주(68) 석두어촌계장은 고민했다. 여기에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함평군도 동조하면서 돌머리지구 연안유희지 개발사업이 시작됐다.

그 전에 주민들과 함평군은 함평만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2001년 함평군 갯벌이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그 생태적 가치를 지금까지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연

151가구 주민 391명 오손도손

석화·낙지·새꼬막·보리새우 유명

돌머리해수욕장 주변 유희지 개발

계절마다 이색 체험 프로그램 인기

석화·바지락 등 가공식품 개발 분주

안습지란 만조와 간조 사이에 바닷물이 드나드는 경계지역을 말하며,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는 보고다. 함평만 습지보호구역 내에는 돌머리 해수욕장, 신광 염전 함평 해수점, 안악해수욕장 등이 있다. 돌머리 해수욕장은 2016년 '전국 청정해수욕장 2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돌머리 해수욕장의 천혜의 습지에 석화, 고동, 칠게, 낙지 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연산 석화는 밀물 때는 바다 영양분을 흡수하고, 썰물 때는 갯바람과 햇빛을 받으면서 자라 담백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머물며 즐기면서 소비해 석두마을과 함평 전체의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작한 것이 돌머리지구 연안유희지 개발사업이다. 돌머리지구 연안유희지 개발사업은 국비 42억5,000만 원 등 총사업비 85억 원을 투입해 돌머리 해수욕장 일대에 해변탐방로, 갯벌탐방로, 어린이풀장, 해수풀장,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유희지를 활용한 친서민 휴양시설을 설치하는 국책사업으로, 지난 2011년 선정됐다. 소나무 숲 사이로 연장 612m 폭 6m의 해변탐방로가 가장 먼저 개설됐고, 어린이 물놀이장, 해수풀장, 갯벌탐방로, 오토캠핑장 등이 2017년까지 차례로 들어섰다. 4,780㎡의 어린이 물놀이장은 워터벤티, 워터슬라이드 등을 갖춘 해수욕과는 다른 재미를 즐길 수 있다. 7,480㎡ 규모의 해수풀장은 썰물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바닷물을 끌어와 조성한 인공풀장이다.

바다를 향해 목재 데크로 조성된 갯벌탐방로는 길이 405m로, 광활하게 펼쳐진 갯벌에서 게, 조개 등이 살아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다리마다 LED 조명을 입혀 밤이면 여러 색깔이 시시각각 변하며 다양한 색채로 밤바다를 수놓는다. 오토캠핑장은 4,850㎡ 규모로 총 16면을 조성하고 카리반 10대와

취사장, 화장실을 갖췄다.

이곳 인근엔 해수점, 주포한옥마을, 주포다목적센터 등이 있고 해수점 치유센터에 10.8km의 해안도로까지 개설되면서 전남의 새로운 관광명사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2021년 12월에는 함평 돌머리 글램핑장이 문을 열었다. 바비큐장, 집실, 화장실 등 최신 편의시설이 갖춰진 글램핑 5동이 해변가 바로 앞에 조성된 것이다. 카리반의 인기가 높아 예약이 어려울 정도가 되자 손흥주 어촌계장의 주도로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한 '우수어촌체험휴양마을 선정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받은 상금 6000만 원으로 글램핑장을 조성한 것이다.

3월~10월에는 개매기 체험을, 1월~12월에는 바지락잡기 체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특히 7~8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는 잠숫벤치잡기와 바지락 캐기는 매년 찾는 고객이 있을 정도로 큰 인기다. 풍등 날리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계속 개발중이다. 지난 2019년 10월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지원을 받아 제1회 돌머리 신바람 나는 핑크몰리 갯벌축제를 열기도 했다.

관광자원만으로는 마을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손흥주 어촌계장은 6차 산업에서 답을 찾고 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석두마을의 석화, 바지락, 낙지 등으로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반농반어 마을의 장점을 살려 고구마, 양파, 마늘 등의 농산물도 함께 파는 방법을 구상중이다. 마을 주민이 직접 잡은 특산물과 이를 가공한 상품에 함평군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파는 진정한 로컬 푸드 매장이자 보니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철에는 상품이 매진될 정도로 인기다.

마을 소득도 예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관광객으로 인해 갯벌에서의 수확량이 줄어들까 걱정하던 일부 주민들도 지금은 관광객 체험 활동을 함께 돕고 있다. 현재 주민들에게 분배되는 금액은 20만 원 내외의 수준이지만, 조만간 매달 20만~30만 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평 석두마을에는 전남도내의 물론 전국 각지의 어촌에서 어민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 함평 석두에 대한 함평군의 지속적인 투자, 손흥주 어촌계장 등 리더들의 혁신적인 정책 등을 배우기 위해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 제공=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함평에 유일한 해수욕장인 돌머리 해수욕장. 깨끗한 바다와 모래, 갯벌 등으로 바다 생태의 보고로 불린다.